

# 자성과 쇄신... 비구니 참종권 확대부터

# 法대로 살아야 法대로 간다

##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일동 토론회

2011년 조계종 분한신고에 등록된 스님은 1만2185명이다. 이 가운데 수계를 받은 비구스님은 5237명, 비구니스님은 4989명이다. 비구니스님들은 조계종 승가구성의원인 절반을 차지함에도 중앙총회의원수는 81명 가운데 10명뿐이다.

이런 가운데, 비구니참종권 확대 등을 통해 종단 내 비구니승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한국 불교가 민족종교로서 자긍심을 되찾고 사회와 함께하는 국민불교로서 다시 서는 계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구니승가 역시 종단 결사에 적극 동참해 사부대중과의 소통과 화합, 자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앙총회회장 보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단 차원의 결사가 진행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비구니승가의 한축인 비구니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함은 결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범 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의 미래는 (이번 토론회와 같은) 비구니스님들의 적극적·주체적인 대중공사를 통한 자성과 쇄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일운 스님(중앙총회 비구니회장)이 '한국불교와 비구니승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기조발제 했다. 또, 탁연 스님(중앙총회의원)이 '교단내 비구

니스가의 위상정립을 위하여'를, 효탄 스님(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이 '자성과 쇄신결사가 비구니 승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옥복연 소장(종교와젠더연구소)이 '성평등한 교단을 위한 비구니승가의 역할기대'를 주제발표 했다.

기조발제자 일운 스님을 비롯한 주제발표자들은 종단 내 비구·비구니 불평등이 성문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성과 쇄신을 위한 불교중흥을 위해서는 비구니참종권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운 스님은 기조발제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증가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 전문영역에서의 활발한 진입 등 남녀평등적인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비구니 위상과 역할 확대에 장애가 되는 종단 내 비구니 차별적인 법·제도과 관습을 바로 잡고 현대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와 함께 하는 종교로 쇄신하자"고 말했다.

초대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한 탁연 스님은 주제발제를 통해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비구니스승가의 교단내 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했다.

탁연 스님은 "개혁종단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구니 종단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헌중법상 명시된 비구니 위상에 하등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라며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종헌중법상 범으로 명시된 비구·비구니차별을 예로 들었다. 탁연 스님이 종헌중법상 비구·비구니



2월 28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한 담론이 오갔다.

**비구니, 전제 승려 대비 절반 차별법·제도·관습 바로 잡아 비구를 승려로 비구계를 구족계로 '비구니 총무원장 79.6%' 설문 응답**

차별 조항이라 지적한 것은 종정·원로의 원·총무원장·교육원장·호계원장·법규위원 자격을 비구로 제한한 것(종헌 제 20·26·53조 등)이다. 스님은 종헌중법상 문제제항의 '비구'를 '승려'로, '비구계'를 '구족계'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탁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정혜도량이 결성되면서 앞선 스님들이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해 부단히 애썼음에도 담보하는 이유는 비구 중심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낙후된 보수 관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은 1994년 이후 별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너

무 쉽게 자포자기하며 적당한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해버린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탄 스님도 주제발표를 통해 "개신교 성직자가 조계종 승려수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현실에서 비구·비구니를 가르치고 참종권을 막아서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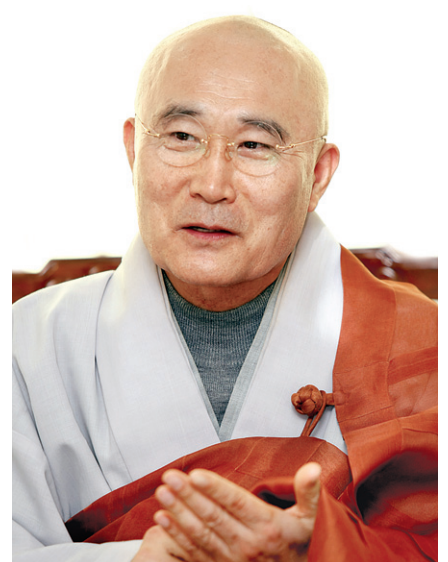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출가자 335명과 재가자 15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옥 소장은 "남·여 응답자 79.6%가 '비구니스님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말했다.

우희중 교수(서울대)는 토론문에서 "일반사회에서도 집단 내 남녀 비율을 반영한다. 종단 구성에 있어서 비구니스님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적극 지지한다"며 "차이를 차별로 보지 않아야 할 승가가 전근대적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출가·열반절 법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월 29일 출가절을 맞아 조계사에서 법문을 했다. 그 내용을 갖추려 신는다.



음력 2월 8일은 우리 불자들에게 매우 뜻 깊고 소중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과감히 물리치고 출가(出家)의 원력을 실천에 옮긴 출가제일이기 때문입니다. 1주일 뒤인 음력 2월 15일은 대자대비심으로 평생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하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은 열반제일입니다.

불자 여러분, 출가제일인 오늘부터 열반제일까지 여러분께서 불교와 인연 맺은 공덕을 귀하게 여기면서 부단히 수행 정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으면 합니다. 종단에서도 앞으로 1주일간을 출가열반절 행사기간으로 정해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법회와 기도를 진행하는 한편 승보공양운동(僧寶供養運動)을 전개합니다. 우리 절 또한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출가열반절과 승보공양운동에 흔쾌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는 우리 종단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불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원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출가의 뜻과 열반의 의미, 스님들의 출가 초심(初心)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가불자들도 출가열반절을 계기로 종단에서 추진하는 결사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출가의 의미

출가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광명의 세계에서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원력을 실천에 옮긴 것이 출가의 바른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전의 싯다르타 태자 입장에서 '집을 나온것은 왜 일까. 싯다르타가 향유할 수 있었던 세속적 가치의 '집착과 무명'의 인연을 끊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괴로움을 멸(滅)하고 다른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의 원을 실천하신 것은 바로 '무상한 삶'을 관찰하고 영원한 대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상하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한 삶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대자유의 깨달음을 성취하며, 동시에 나보다 나은 남,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

## 5대결사 '불교적인 삶' 원력 출가는 무상진리·연기적 삶 실천 열반은 번뇌 여인 대자대비행

님의 가르침은 무상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연기적 삶을 살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아가 열반적정(涅槃寂靜)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가정신입니다.

### 열반의 의미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을 두고 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세수80에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바세계와 인연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法)을 설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법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신다고 슬퍼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바세계에 머무실 때에도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대자대비심을 한없이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동안에도 모든 번뇌를 여의고, 불법(佛法)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살아생전에 잘 실천해야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육신'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대자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열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전에 불법(佛法)대로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도 불법(佛法)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동국대, 신공학관 및 남산학사 준공 동국대(총장 김희욱)는 2월 28일 남산학사 1층에서 기숙사 '남산학사'와 신공학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산학사는 연면적 1만4262㎡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져, 2인 1실로 751명이 거주할 수 있다. 체력단련실과 식당, 정보화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준공식에서 동국대 이사장 정연 스님(왼쪽에서 세번째)과 김희욱 총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법인이사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조동섭 기자

## NGO단체, 중회 모니터링감시단 발족

조계종 입법·대의기구인 중앙총회의 역할과 활동의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가 발족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 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총회 NGO모니터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NGO모니터단의 집행위원장은 모니터링단 참여 4개 단체 대표가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초대 집행위원장은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이 맡았다.

모니터단은 3월 중회부터 종단 결사 실천, 입법 활동, 시민사회 활동, 인권·성평

등 실태, 종단 예·결산 활동과 의원출결 현황 등 중앙총회 기구 및 의원 활동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 사부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중회와 종도, 출가자와 재가자의 소통 확대를 통한 실천적 대안 모색에 힘쓸 예정이다.

발족식에 앞서서는 모니터링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는 순혁재 교수(경기대)가 '민주주의와 인권, 대의제도'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중앙총회의 역할과 위상'을, 옥복연 소장이 '중앙총회 모니터링의 실제'를 강연했다.

조동섭 기자



### 특강 철학강의(무료)

눈은 떴지만 바로 못보고 귀는 있지만 바로 듣지 못하네 길은 있지만 갈팡질팡 헤매네 길을 아는 북이 보명사에 있다하여 도처에서 찾아 오네!

### 사기위인(捨己爲人)이라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니라! 관심있는 분 문자로 성명 생년 월일시(음력) 보내주세요! ■문자보낼 번호: 010-5474-8497 \*일반전화 통화는 사절 양해바람

## ★ 임진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 신생아

# 작명

세상 만물이 난조(暖燥) 및 한습(寒濕)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듯이 인간도 자연의 조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신생아는 출다, 덩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표현이다.

부모가 출다, 덩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             |                |                        |
|-------------|----------------|------------------------|
| <b>방필석</b>  |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
| <b>대외활동</b> |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
|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
|             | ●보명사 창건 공덕주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거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된 **한 장소에 23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가담방필석법사

## 개명·아호·상호 역학개인지도

♪ 잘될사람 오는 집 ♪